

현대·기아차, 셀토스·베뉴 앞세워 인도시장 공략

미·중 수요 침체 따라 신흥시장 개척
 '셀토스' 인도 공장 본격 가동
 연간 6만대 판매 목표
 20여일간 2만 2073대 계약 흥행 예고



기아차 '셀토스'



현대차 '베뉴'

현대·기아자동차가 신흥시장 개척에 나섰다. 첫 공략지역인 인도다. 광주에서 본격 양산에 들어간 기아 '셀토스'와 현대 '베뉴'를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둘 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의 수요가 침체된 만큼 인도 등 새로운 시장 공략을 통해 판매 실적을 개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12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10만4916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감소한 수치다.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 SUV '팔리세이드' 등의 판매 호조와 '신형 쏘나타'의 신차 효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한 20만156대를 판매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어든 90만4760대만이 팔렸다.

기아차 역시 올해 상반기 해외 시장에서 110만 9759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어 든 수치다.

미·중 무역분쟁 탓이 크다.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흥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커졌다.

현대·기아차는 첫 공략지로 인도를 선택했다.

기아차는 소형 SUV '셀토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셀토스는 인도공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첫 모델로, 지난해 말 생산을 본격화했다. 인도시장 정식 출시는 오는 22일이다. 인도공장은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지역에 있으며, 2017년 10월 착공했다. 부지 규모는 216만㎡(65만5000평)이다. 인도공장은 아프리카·중동,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의 주둔지가 될 전망이다.

기아차는 약 13개월동안 인도시장을 분석했다. 인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디자인·특화 사양 등 현

지와 작업을 거쳐 인도시장에 최적화된 셀토스를 개발했다.

인도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해 16일(현지 시각)부터 받은 사전계약 첫 날, 6046대의 계약 건수를 기록하는 등 지난 6일까지 누적 2만2073대를 계약해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기아차는 인도시장 진출이 처음인 만큼 초기 안착을 위해 인도 전역 160개 도시에 265개의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셀토스를 인도 내수 시장에서 연간 6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3년 내 생산한도 30만대를 목표로 잡았다. 내년 신규

차종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에 대한 인도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기아차 인도공장이 성공적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며 "기아차의 글로벌 성장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인도시장 공략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인도시장 공략 차종으로 소형 SUV '베뉴'를 선택했다.

지난 6월 인도에서 처음 출시된 베뉴는 출시 직후 8763대가 판매됐다. 지난해에는 9585대 팔아 판매량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시 60일 만에 계약 대수 5

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차는 베뉴에 이어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차를 지속 출시하고, SUV를 중심으로 하는 제품 믹스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신흥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 6일 인도에서 소형 해치백 '그랜드 i10 니오스'를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들어갔다. SUV 등 큰 모델을 선호하는 한국과 달리 소형차를 선호하는 인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 그랜드 i10 니오스는 1.2ℓ 가솔린과 디젤 등의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되며, 오는 20일 출시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S클래스 인기에...메르세데스-벤츠, 고가 차종 1위 질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억원 이상 고가 차종 판매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2016년 경쟁자인 BMW를 제친 뒤 올 상반기까지 줄곧 'No.1'이다. 이는 식을 줄 모르는 S클래스의 인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 잇따라 출시되는 '신차 효과'에 일본 수출규제 여파도 벤츠의 질주를 돕고 있다.



벤츠 S클래스

반면, 'S클래스를 잡겠다'며 7시리즈 부분변경 모델로 맞붙을 놓은 BMW코리아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1억원 이상 차량은 모두 1만3791대다.

이 가운데 벤츠가 4686대 33.98%를 차지, 가장 많이 판매했다. 이어 BMW 3601대(26.11%), 포르쉐 2829대(20.51%), 랜드로버 1200대(8.7%), 마세라티 645대(4.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가 고가 차량 판매 1위를 질 수 있는 배경은 플래그십인 S클래스 덕분이다. 특히 국내에서 팔린 1억5000만원 이상 차량 4307대 중 S클래스는 2400여 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BMW코리아가 지난 6월 'S클래스를 잡겠다'며 4년 만에 내놓은 7시리즈 부분변경 모델은 아직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출시 이후 7월까지 두 달 동안 200여 대가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다. '신차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하지만 벤츠 S클래스는 BMW 7시리즈 부분변경 모델 출시 이후에도 두 달간

1000대 이상 판매했다. S클래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7시리즈가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벤츠는 S클래스를 다양하게 세분화해 10종 이상으로 구성한 반면, BMW 7시리즈는 절반 수준인 7종에 그친다. S클래스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생산 기아차 스포티지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16위

현대차 투싼(14위) 이어 국내 두번째...한국차 10종 100위권

광주에서 생산하는 기아차 스포티지가 글로벌 베스트셀링카 16위에 올랐다. 한국 차 중 1위는 투싼(14위)이 차지했다.

12일 자동차 판매 집계 전문업체 포커스투무브가 최근 발표한 '월드 베스트셀링카 랭킹'을 보면 올해 상반기 많이 팔린 차 100위 안에 든 한국 차는 모두 10종이다.

현대차가 7종, 기아차가 3종이다. 차종별로는 SUV가 6종이다.

한국 차 중 1위는 현대차 투싼(25만 7559대)으로 14위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판매량이 9.8% 감소하며 한 단계 내려앉았다.

2위는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아차 스포티지(24만6181대)가 차지했다. 1년 전보다 두 계단 오른 16위다. 판매량도 2.8% 늘었다.

현대차 아반떼(수출명 엘란트라)가

25위, 싼타페가 49위로 뒤를 이었다. 아반떼는 19만6909대로 작년보다 37.3% 감소하면서 지난해 세계 12위, 한국차 중 1위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싼타페(15만3319대)는 판매량이 1.6% 증가하며 3계단 상승해 50위권에 올라섰다.

그 다음이 이번에 신규 진입한 코나다. 코나는 올 상반기 세계 판매량이 13만3971대로 66위를 기록했다. 판매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67.2% 증가하며 순위가 1년 전 115위에서 49계단 뛰었다. 2년 만에 100위권에 진입한 것이다. 2017년 6월 출시된 코나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어 현대차 크레타(71위·13만2464대), 기아차 리오(76위·13만466대), 현대차 i20(84위·12만2728대)다.

반면 3월 신형 모델이 나온 현대차 쏘

나타는 104위에서 89위로 도약했다.

상반기 판매량이 11만6327대로 작년 동기보다 5.1% 늘었다.

기아차 쏘렌토(10만9830대)는 간신히 100위권에 남았다. 판매량이 14.5% 감소하면서 순위도 80위에서 95위로 하락했다.

글로벌 판매 1위는 도요타 코롤라(59만6281대)로, 판매량이 2.0% 줄었지만 제자리를 계속 지켰다. 도요타는 라브4(3위), 캠리(8위) 등 3종이 100위권이고, 100위 안에는 모두 9종이 포함되며 강세를 보였다.

폴크스바겐은 티구안(6위), 골프(7위), 폴로(10위) 등 10종이 100위권에 들었고, 닛산과 포드는 각각 8종이 포함됐다.

올해 순위가 급등한 차량은 코나 외에 벤츠 A클래스(160→53위), BMW X3(110→58위), 테슬라 모델 3(169→85위) 등이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